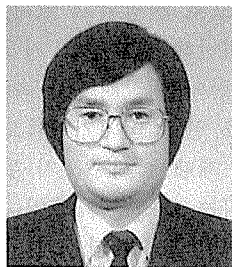


蘇聯市場에의 進出與件과 主要 先進國의 進出事例



오 용 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머리말

韓·蘇 頂上會談을 통해서 두나라의 修交問題와 더불어 교역 및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증진시켜 나갈 實務協議가 곧 이루어 질 전망이다. 그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蘇聯市場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소련과 이미 직·간접교역을 시작하고 소련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위해서 준비를 해온 기업들은 적지 않으나 교역 이외에 소련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株)進度가 모스크바에서 毛皮製品을 판매하고 있을 뿐이며 나머지는 아직까지 계획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소련과의 國交正常化를 전후하여 貿易協定에 의해 서로 最惠國 待遇를 받게 되고 投資保障協定과 二重課稅防止協定을 통해서 未修交 상태에서 두나라 사이에 가로 놓여 있던 무역과 투자확대의 障礙要因들이 제거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소련의 경제사정과 劣惡한 투자환경이다.

2. 最近의 對蘇 進出 與件

금년도 1/4분기 實質工業生産 增加率이 마이

너스 1.2%를 기록할 만큼 소련 사정은 한마디로 지극히 나쁘다. 대외적으로는 20~30억 달러에 이르는 輸入代金を 지불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 때문에 西方의 대규모 수출업자들은 소련에 상품공급을 중지하고 있는데 西獨의 「시멘스」社는 PC 30만대의 수출계약을 연기했고, 英國의 「코어월드」社, 「임페리얼·케미컬」社 등은 그것이 企業資金壓迫 요인이 되어 産業部長官이 5일간 소련을 방문하기까지 하였으며, 프랑스 經濟, 財務長官도 같은 문제로 모스크바를 방문한 바 있다. 우리 기업도 소련에 수출하고 4,200~4,300만 달러의 대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그 위에 소련과 우리 기업의 거래를 증개하던 西方 기업들이 소련으로부터 대금을 제때에 받아 내지 못하자 거래증개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蘇聯에서의 投資與件 또한 좋지 않다. 투자의 시작단계인 사무실 임대의 어려움에서부터 엄청나게 비싼 임대료, 1년정도 기다려야 가설이 가능한 국제전화를 비롯해서 투자하고 난 이후의 노동력 구인난, 취약한 인프라스트럭처, 루블貨의 不換性으로 인한 투자자금과 판매자금상의 乖離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투자목적으로 소련에 왔다가 포기

하고 돌아가버리는 西方企業人の 수가 사업에 착수하는 수의 2 배 이상 많다. 현재 西方企業이 소련으로부터 승인 받은 合作投資 件數는 1,600에 달하지만 실제 가동 건수는 10%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대부분이 赤字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韓·蘇간에 修交가 되고 여러가지 무역·투자협정 체결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양국의 經濟交流가 얼마나 확대될 수 있겠느냐 하는 懷疑의 反應이 많다. 물론 급속한 체제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적 상황이 나쁘고 그 위에 정치적 불안요인까지 안고 있으며, 아직도 경직적인 사회주의 경제의 폐쇄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련에 무모하게 진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련은 지구표면의 6분의 1이나 되는 세계최대의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로서 최근 급속히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해 가고 있으며 기초과학분야에서부터 첨단분야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기술을 산업기술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의 경제적 潛在力은 엄청나게 크다.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이 큰 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뚫고 들어가기에 絶好의 機會를 맞고 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거기에 수반되는 위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보다 앞서 소련에 진출한 西獨, 프랑스, 日本 등 주요 선진국의 事例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對蘇 進出方向을 모색하는 데 示唆하는 바가 적지 않으리라고 본다.

3. 主要先進國의 對蘇 進出 事例

西獨은 西方 국가들 중에서 소련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경제협력국이다. 현재 서독과 소련의 경제협력은 1980년에 양국 정부에 의해 체결된 2005년까지의 경제·산업협력 장기프로그램과 서독의 聯邦經濟長官과 소련의 副總理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간 경제협력의 특징은 규모가 크고 정부의 長期協定에 의해서 추진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대규모 프로젝트는 1970년대 상반기에 서독이 소련의 천연가스를 현물로 받는다는 조건으로 소련에 가스파이프 라인 건설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서독이 정부차원에서 소련과 적극적으로 경제협력에 나서는 이유는 양국의 협력이 東·西獨 문제를 해결하는 關鍵으로 본 때문이다. 南·北韓 문제를 두고 소련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작년 6월 고르바초프의 서독 방문시에도 서독정부는 소련기업인 초청연수, 경영기술교육, 원자력설비 등에 관해서 소련과 협력하고 소련 정부는 소련에 진출하는 서독 기업인들의 소련 내 연구시설의 이용, 造船, 航空機의 제작과 산업 현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합의하였다. 電子産業分野에서 서독의 International Processing Systems 社와 소련의 Harko전기가 50대 50의 비율로 소련에 합작회사 Interkomp 社를 세워 95년까지 PC 10만대를 생산·_개하고, 서독 Deutsche Babcock 社와 소련 Tekhnopribor가 26대74의 비율로 컴퓨터부품생산공장을 세우기로 합의한 것도 그와 때를 같이 한다. 이러한 경제협력관계가 결국 東西獨의 統一에 소련의 동의를 쉽게 얻어 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프랑스와 소련의 경제관계는 별로 크지 않았으나 앞으로 급격한 伸張勢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프랑스 社會黨 政府가 서독과 함께 소련에 적극적인 경계지원에 나서기로 하였고 比較優位가 큰 프랑스의 설당, 낙농제품 등 식료품이 소련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세계적인 프랑스의 화장품 산업도 소련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련의 컬러TV제조는 프랑스식 Secam방식을 쓰고 있는 데다가 작년 7월 고르바초프의 프랑스 방문시에 소련의 고화질 TV생산, 통신망 건설, 항공기제작 등에 프랑스가 협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電子産業分野에서 프랑스의 對蘇 진출은 두드러질 전망이다.

프랑스 기업들은 對蘇投資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루블화의 교환성 미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콘소시움을 형성하여 소련에 진출하기로 기업들간에 합의 하였다. 이 콘소시움에는 Electronique Serge Dassault, Thomson CSF 전자회사를 비롯한 석유·가스, 화학 등 제조회사와 관광, 은행 등 서비스회사도 참여하고 있다.

對蘇 투자진출에서 콘소시움을 형성하는 것은 거의 필수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것은 이 방법이 위험을 분산시키고, 對蘇交渉力を 크게 해주며, 참여업종의 다양성으로 인한 合作投資의 성사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美國의 포드자동차, 이스탄 코닥, 나비스코, 존슨&존슨 등을 포함한 7개의 大企業들도 콘소시움을 구성하고 소련시장 개척에 나섰다. 사실은 깊이 음미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과 소련의 경제협력은 1957년 두 나라 간의 通商條約과 貿易支拂協定이 체결됨으로써 본격화되었고 1975년 일본이 소련에 암모니아를 비롯한 9억 달러 상당의 대형플랜트 수출과 大口径鋼管의 수출에 대한 뱅크론의 적용으로 일본의 對蘇 수출이 급증하여 1982년에는 西方國家중에서 제 1의 對蘇 輸出國이 되었다. 현재 서독, 핀란드에 이어 소련의 제 3위 교역상대국인 일본은 1970년대 석유위기 이후 석유 의존적 산업구조 조정을 끝냄으로써 對蘇 商品輸入構造는 서독, 프랑스와 달리 석유의 비중이 작은 반면, 목재와 석탄, 그리고 어패류를 비롯한 해산물 가공제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품목도 다양하다.

일본의 對蘇 투자는 북방 4개 섬의 반환문제와 연계되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극동 지역의 연안무역과 어업, 수산물가공, 목재가공, 관광·수송업 등의 合作파트너로 활발히 참여하여 이 지역에 대한 외국투자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금년 1월 일본 외무장관이 소련을 방문하여 내년 4월 고르바초프의 訪日과 소련에 대해서 경영, 품질관리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경제 및 기술협력을 펴나가기로 함으로써 앞으로 日·蘇 경제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소련이 일본의 영토문제해결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덧가로 일본의 對蘇 협력범위는 예상밖으로 커질 수도 있다.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무역이나 투자의 비중이 크지 않았던 전자산업은 일본의 우수한 기술을 앞세워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분야의 하나이다.

일본은 소련과의 경제협력을 정치문제와 연계시키면서도 경제적 실리차원에서 소련과의 교역품목을 다양화시켜 왔고 투자도 신중하게 관망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가운데 소련의 沿海州, 하바로프스크, 사할린 등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왔다. 또한 민간차원의 蘇聯·東歐貿易會(SOTOB) 등을 통한 시장조사와 연구를 꾸준히 필요한 정보를 축적하고 상황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우리 企業의 對應

소련의 市場潛在力, 그중에서 소비재시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 소련의 消費財需要는 계속 크게 증가하여, 소매상품 판매액이 1988년 60억 루블에서 135억 루블로 2.3배나 늘어난 추세를 보였고, 금년 소비재 생산목표 600억 루블중 1/4분기 실적을 보면 목표액 165억 루블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70억 루블에 그침으로써 소련의 소비재 輸入需要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비재의 對蘇 수출증가 가능성은 매우 크다.

소련에 수출이 유망한 품목은 섬유류, 의류, 신발, 비누, 치약, 화장품 등 일반 소비제품 뿐만 아니라 TV, VTR,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부품, 자동차, 자전거 등 내구소비재, PC, 카메라, 사무용기기, 기계류, 선박, 소비재공업 육성에 필요한 산업생산 플랜트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나라 상품이 세계 시장에서 정상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최근 輸出市場에서 우리나라의 VCR이나 전자레인지처럼 日製나 美製에 비해서 최신식 편의성도 갖추지 못하면서 값만 비싸고 불량률이 일체의 3배가 넘는 5%나 된다는 평판을 받고서는 소련이 아무리 물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상품에 관심을 가질리 없다.

소련과의 교역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對蘇進出의 安全辨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우선 교역을 통해서 투자진출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그 가능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 기업홍보와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역

단계에서 투자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상품의 수송판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소규모로 상품을 현지에서 組立生産한다. 이러한 소규모 투자는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현지에 적응하는 충분한 시간을 얻게 해 줄 것이다. 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 사업확대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 자신까지 생기게 될 것은 틀림없다.

컴퓨터 약어해설

GIS : Generalized Information System

파일의 유지, 데이터베이스의 생성, 경영정보의 검색 등 특정한 데이터의 요구와 OS/360을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범용 루틴.

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지리정보 시스템)

컴퓨터에 입력된 도면을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한 소프트웨어.

HA : Half Adder(반가산기)

가산기의 일부를 이루는 장치. 2개의 입력, 곱피가수(augend)와 가수(addend), 또는 자리올림(carry)을 받아 합(sum)과 자리올림의 2개의 출력을 내는 회로.

HA : Home Automation(가정자동화)

홈 일렉트로닉스(home electronics)라고도 한다. 전자기술과 마이크로컴퓨터를 가정생활의 모든 면에 보급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스템. 생에너지, 생력화뿐만 아니라 영상통신, 홈뱅킹, 홈팩시 등 목적이 광범위하다. 가스레인지 등의 각종 전기제품을 외부에서 전화를 이용해 자동으로 끄거나 켤 수 있고, 방재 및 방범, 외부와의 정보교환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화재, 방범, 환기, 가스, 비상경보 등을 관리하는 안전시스템과 에어컨 및 조명제어, 전화 자동제어를 하는 제어시스템, 그리고 문자다중수신기, 자동통보전화, 전화감시 등을 하는 통신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HAA : Hitachi Application Architecture

대형 컴퓨터에서 워크스테이션까지의 애플리

케이션을 통합한 아키텍처. HAA는 초대형 컴퓨터로부터 워크스테이션에 공통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API, 애플리케이션간 통신용 인터페이스 CSI, 조작 인터페이스 COI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HASP : Houston Automatic Spooling Priority 8 System

시스템/360, 370 운영체제의 확장기능의 하나. 작업흐름의 제어, 테스크의 순서기입, 스폴링(spooling) 등의 보조적인 작업관리, 데이터관리, 테스크관리를 제공하는 것.

HDBMS : Hierarchical Data Base Management System(계층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로드, 액세스, 제어시키는 것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의 집합. 일련의 노드가 가지로 연결된 역트리처럼 데이터가 조직된다.

HDD : Hard Disk Drive(하드디스크 구동장치)

표면이 자성체로 코팅된 견고한 반도체 종류의 물질로 된 하드디스크를 작동해 주는 장치.

IACK : Interrupt ACKnowledge signal(아이맥)

인터럽트 인식 응답 신호.

IAL : International Algebraic Language(국제 대수언어)

이것이 ALGOL로 발전했다.

IAM : Indexed Access Method

인덱스를 이용하여 액세스를 빨리 수행시키는 방법. 순차적 액세스방법(SAM)이나 직접 액세스방법(DAM)에 응용된다.